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북한 ‘1호 사진’의 변화

변영욱(동아일보 편집국 사진기자)

노동신문 사진에 대한 내용 분석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진은 ‘1호 사진’으로 불리며 특별히 선정된 사진기자들에 의해서만 촬영되며, 정보를 최대한 줄인 채 외부에 노출된다. 철저하게 계산된 사진을 내보낼 뿐 사진을 조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특징은 북한 사회에서 수령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1967년경부터 시작되어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다.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이후 ‘1호 사진’에는 변화가 있다. 첫째, 사진 속에서 김정일은 이전과는 달리 권위의 상징인 키높이 구두를 벗고 있으며 군부대 기념사진에서는 망원경과 자동보총이 사라졌다. 둘째, 신문에는 하루에 40장이 넘는 김정일 사진이 실리기도 한다. 셋째, 경제현장을 방문한 김정일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넷째, 외부 관찰자를 의식해 예전과는 다른 형식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한다. 다섯째, 권력의 상징인 사진에서 나타나는 후계자 김정은의 모습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여섯째, 구호판을 조작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메시지를 사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강성대국 원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경제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최고 지도자의 건강문제까지 겹치면서 북한은 체제 안정이라는 정치적 과제에 부딪혔다.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진이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북한에서 사진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매체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복무하는

도구이다.

주제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수령제, 사진, 1호 사진, 건강이상설, 강성대국, 초상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사진기자, 1967년

1. 문제제기

2008년 가을 김정일의 건강이 실제로 위협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와 상관없이 김정일의 모습이 북한의 대중매체에서 사라졌으며 외부 관찰자들은 그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언론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그의 병명이 뇌졸중, 중풍이라고 단정 짓기도¹⁾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북한 인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두 달에 걸쳐 대중 매체에서 김정일의 얼굴이 사라진 상황이 인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강성대국 원년을 몇 년 앞둔 데다 후계 문제까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태는 북한에게 하나의 위기였을 수도 있다.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약 1년이 지난 2009년 가을부터 최근까지 북한 노동신문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등장하는 날이면 6개에 불과한 지면에 수십 장의 사진이 실리며 사진이 전체 지면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한된 지면에 김정일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9월 9일 정권수립 60주년 기념행사장에게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미국의 AP 통신 등은 미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뇌졸중(stroke)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2008년 9월 10일.

<사진 1>



관련 사진이 수십 장 실리면서 다른 기사나 사진은 아예 사라진다. 김정일 개인의 사진첩 같은 지면이 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노동신문 창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사진 1>).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나오고 화폐개혁이 발표되고 또한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북한 정치무대에 등장하는 등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의 공식입장을 표방하는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 최고지도자의 사진이 이처럼 이례적인 형태와 빈도로 게재되는 것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사진의 양이 급증하고 특정한 주제의 사진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북한 정치에서 사진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하기를 바라는 권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신문과 방송 등의 선전 매체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자신의 체제와 권력을 정당화하고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구사한 설득전략에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겠지만, 북한의 정치와 사회의 제 과정에서 매스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²⁾ 매스미디어를 통해 권력을 정당화하고 집권층을 신화화하려는 노력은 북한 체제에서는 당연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전 매체에 실리는 콘텐츠(contents) 또는 텍스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사진이다. 사진 역시 체제 정당화와 안정화를 위해 역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피사체가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해야만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앞에 존재하는 피사체의 상태를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고지도자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되는 위기 상황에서 사진은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이 글은 북한 정치에서 사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매스미디어가 독점된 조건에서 이데올로기 도구로서의 사진이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이다.

사진과 관련된 북한의 문헌들에 따르면, 북한의 출판보도물에 게재되는 김일성·김정일 사진은 ‘수령님의 영상’, ‘수령님의 영상사진’, ‘수령영상촬영’, ‘수령의 영상이 모셔진 사진’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1호 사진’이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일성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1호 도로’³⁾라고 하거나, 김일성과 김정일 전용 열차를 ‘1호 열차’로 부

2) 강현두, 『북한 매스미디어론』(서울: 나남출판, 1997), 24쪽.

3) 김정숙,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서울: 정토출판, 2006), 101쪽.

르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통일부도 ‘1호 사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⁴⁾

본 논문에서는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전후 노동신문에 실리는 ‘1호 사진’을 통해 사진이 북한의 정치 현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건강이상설 이전의 ‘1호 사진’의 특성은 1955년부터 2005년까지 50년간의 노동신문을 2년씩 격차를 두어 선택하여, 그렇게 선택된 25년 중 각각의 1월분 신문 31일치를 표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⁵⁾ 이 글을 위해 추가적으로 2008년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내로 전해진 ‘1호 사진’ 전체를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사진과 정치

사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계적인 기록이 아니며, 사진가가 사물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대상의 선택에 의한 반영이며 재구성이다.⁶⁾ 또한, 사진을 포함한 영상은 인간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는데,

4) 2008년 11월 3일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북한 당국에서 발표한 ‘1호 사진’에 대해 제가 합성여부를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국가가 공식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진은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관례”라고 답했다.

5) 변영욱, “북한 ‘1호 사진’의 변화”(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6) 존 버거, 『이미지-시각과 미디어』, 편집부 옮김(서울: 동문선, 1991), 28쪽 참조

영상의 생산과 소비는 영상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활동이며,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⁷⁾ 하지만, 사진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의도성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진은 주관적인 매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매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 때문이다. 사진은, 흔히, 기계적인 기록이라는 제작과정의 기술적 속성과 재현의 정확성으로 인해 ‘객관성’을 부여받는다.⁸⁾ 사진이라는 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적 사회생활의 충실한 재현수단으로서 매우 큰 기록적 가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인과관계의 압력을 떠나 ‘중립적 진실성’을 갖게 되리라는 생각은 때로 허망한 기대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할 만큼 정치사회성이 짙은 사진 게재는 시각적 메시지의 확장을 통한 어떤 목적의 획득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⁹⁾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사진을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양태에 내재하는 문화적 기호로서, 신화의 체계라고 보았고,¹⁰⁾ 발터 벤야민(Benjamin, W.)은 “사진을 읽는다는 행위는 사진 속에 담긴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어떠한 생산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가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사진의 (생산) 의도”에

7) 주형일, 『영상매체와 사회』(서울: 한울, 2004), 29쪽.

8) 사진의 ‘객관성’에 대한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사진영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계적·광학적·화학적 특정 과정을 거쳐 평면 위에 기록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 기록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진은 인간의 주관을 배제한다. 사진은 왜곡 없이 세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필연적으로 사진은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위의 책, 95쪽 참조.

9) 김동철, “프로파간다 사진읽기 역사의 흐름에 지위지는 사람들,” 『계간 사진기자』, 봄호(서울: 한국사진기자협회, 1999).

10) 이영준, 『사진, 이상한 예술』(서울: 눈빛, 1999), 150쪽.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¹¹⁾ 이러한 분석은, 사진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매체일 수 있으므로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며, “사진을 비롯한 시각 예술은 항상 일정한 보호 아래 존재하면서 지배계급을 위해 존재하는 예술”이라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¹²⁾

사진은 어떤 전달수단보다도 직접적이고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런 진실한 속성이 정치권력에 이용되었을 때에는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다.¹³⁾ 그러므로 사진을 사진이 어떠한 생산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며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Karl Marx)도 “우리가 대상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을 바라본다”고 가정했다. 우리는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 관계들, 계급, 조직, 성, 인종 등을 통해서 매개된 표상의 산물들(사진, 영화, 뉴스 등)을 바라보며, 그것들은 누군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추상화되고, 재구성된 것들이라고 본 것이다. 마르크스는 여기에 “권력과 계급관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⁴⁾

권력이 매스미디어를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 체제에서 사진은 더욱 더 권력과 체제 유지에 복무하게 된다. 혁명 이후 러시아의 사진은 “공산주의 러시아의 지도자였던 레닌의 언론강령에 따라 선전

11) 김동철, “프로파간다 사진읽기 역사의 흐름에 지워지는 사람들”에서 재인용.

12) 존 버거, 『이미지-시각과 미디어』, 67쪽 참조.

13) 고명진, “한국 언론의 김일성 사망보도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58쪽.

14) 주창윤, 『영상이미지의 구조』(서울: 나남, 2003), 18쪽에서 재인용.

선동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사회주의 이념의 언론출판은 국민의 총력을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될 수 있도록 운용되었으며, 영상 보도도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알맞은 소재들을 택하는 교회적 대중매체로서 기능¹⁵⁾하였다. 사진을 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 정치인은 히틀러일 것이다. 히틀러는 1933년 권력의 정상에 오름과 동시에 창당 시절의 동지인 하인리히 호프만에게 신문 등에 실리는 자신의 사진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중 집회 연설 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동작과 몸가짐을 찾아낼 수 있었다.¹⁶⁾ 또한, 나치에 의해 공표된 1940년 6월 18일 지시 제351은 히틀러 사진은 반드시 히틀러 자신이나 공시기관에서 허락한 것만 게재할 것을 강요하였다.¹⁷⁾

전쟁을 겪는 경우, 사진은 훨씬 더 정치에 부속되며 복무하게 된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중에 독일 신문은(연합국 신문들도 마찬가지지만) 조작된 사진으로 지면을 채웠었다. 되도록이면 자기 나라에 고무적이고 세심하게 선택된 사진만을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던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프로인트(Freund)는 누군가의 검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진가들이 “정당한 목적을 향해 싸운다는 신념을 갖고” 부정적인 전쟁 장면에 대한 사진가들 자신의 자체 검열을 통해 나타났던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¹⁸⁾

15) 박상수, 『포토저널리즘의 이해』(서울: 나남출판, 2001), 25쪽.

16) 지젤 프로인트, 『사진과 사회』, 성완경 옮김(서울: 기린원, 1990), 125쪽.

17) 김동철, “프로파간다 사진읽기 역사의 흐름에 지워지는 사람들.”

18) 지젤 프로인트, 『사진과 사회』, 161쪽 참조.

2) 북한 정치와 사진

현대의 권력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며 그것과 관련된 모든 담화들은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한다.¹⁹⁾ 대중적 지지를 정통성의 근거로 삼는 현대의 정치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대중설득에 주력하게 된다. 레닌은 “소비에트 체제가 강제와 설득의 균형 위에서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폭력 또는 강제와 설득의 두 가지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⁰⁾

북한 정치의 핵심 과제는 혁명적 세계관을 인민들에게 심어주어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하는 것이다. 혁명적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모신 진정한 대표자이며 통일단결의 중심”²¹⁾이며 수령 체제는 정치경제적 필요에 의해 구상되고 실행되어 온 정치시스템이다. 북한에서 수령이라는 상징체계가 필요했던 이유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다양한 상징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국가건설, 체제유지를 추구”하기 위해서였으며, “분단구조로 인하여 남한과 체제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적 사회통합과 지배구조의 정당화를 위하여 상징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²²⁾ 사회주의혁명의 지속을 위해서는 통일단결의 중심인 수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며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권위를 굳게 세우는 것에서 확보

19) 올리비에 르블, 『언어와 이데올로기』(역사비평사, 1995), 31쪽;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서울: 책세상, 2001), 17쪽에서 재인용.

20) 알렉스 인켈스, 『소련의 여론』, 이규중 옮김(서울: 대학문화사, 1985), 21쪽.

21) 리양일, 『주체영화리론총서(7) - 영화촬영』(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113쪽.

22) 이우영, 『북한사회의 상징체계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2), 17쪽.

되는 것이다. 통일단결의 중심인 수령을 인민들에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널리 선전하고 그로 인해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채널 중 하나가 매스미디어이다. 북한은 신문을 비롯한 방송·통신 등의 출판보도망을 체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해방 직후부터 제기되는 사회주의 혁명노선과 방침을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게 널리 해설 선전하는 한편, 그들을 실천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²³⁾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진도 선전의 매체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상을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사는 것을 더 없는 민족적 긍지로 간직하고 있으며 장군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화면에 밝고 숭엄한 정서가 흐르게 하는 것”과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는 것”은 원칙적 요구가 된다.²⁴⁾

그렇다면 ‘1호 사진’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북한은 사진의 기능에 대해 “사진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줄 수 있는 높은 모사능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진에 반영된 사실과 사건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으며 그것을 전적으로 믿게 된다”²⁵⁾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예술의 기능에 대해 “진실로 사회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예술은 인간 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 데 이바지한다”²⁶⁾

23) 김영주, 『현대북한언론연구』(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166쪽.

24) 리양일, 『주체영화리론총서(7)－영화촬영』, 110쪽.

25) 『조선대백과 사전』(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16쪽.

고 설명하고 있다. 진실을 반영한다는 특성과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해야 하는 목적론적 도구라는 당위의 한 가운데 북한의 사진이 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을 ‘당과 수령의 혁명활동 보도자료’²⁷⁾로 분류한다. 북한은 당과 수령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인 ‘1호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말한다. 첫째,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키워주며 영원히 대를 이어 수령님과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도록 그들을 교양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²⁸⁾

둘째, 이미 사망한 김일성의 시대였던 과거를 추모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김일성 사망 다음 해인 1995년 한 해 동안에만 김일성의 사진을 300차례 정도 신문에 게재하였다. 『로동신문』은 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신문을 볼 때마다 숭고한 도덕 의리심이 넘치는 영상사진이 모셔진 지면부터 펼쳐보며 위대한 수령님은 영생하고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억세게 다졌다”²⁹⁾고 밝히고 있다.³⁰⁾ 이처럼 김일성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후계자

26) 『조선말대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27) 엄기영, 『신문학개론』(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김영주, 『현대북한 언론연구』, 166쪽에서 재인용.

28)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13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22쪽.

29) “동지애로 승리해 온 고난의 행군,” 『로동신문』, 2000년 11월 1일.

30) 대상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영상은 대상의 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실제 대상이 없더라도 영상은 대상을 대신해 그 빈자리를 채운다. 우리가 수첩에 넣고 다니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은 그 사람을 대신해 정서적 공백을 채워준다. 이것은 영상이 실제 대상이 가진 특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술사는 타인에게 주술을 걸기 위해 흔히

인 김정일의 카리스마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일성의 업적을 통해 김정일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기능도 하였을 것이다.

셋째로, 혁명의 지속을 위해서이다.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은 혁명의 지상 요구이므로 수령형상 창조는 주체적 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첫째가는 과업으로 되며, 수령형상창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 것이다.³¹⁾

3. 정치 환경의 변화와 ‘1호 사진’의 변화

먼저 건강이상설 이전까지 북한의 ‘1호 사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²⁾

첫째, 사진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북한 신문의 사진에는 촬영자의 이름이 병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호 사진’의 밑에는 누가 찍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다. 중앙에서 촬영한 사진을 하부 단위 매체로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촬영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촬영날짜에 대한 정보도 없으며 많은 양의 사진을 보여주기도는 필요한 양만큼의 사진만을 최소한으로 국내외에 공표한다.

둘째, 사진은 철저하게 권력을 반영하며 따라서 김일성과 김정일

그의 초상화나 사진을 이용한다. 또한 어떤 대상의 영상을 소유하는 것은 그 대상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주형일, 『영상매체와 사회』, 18쪽.

31)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14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504~506쪽.

32) 변영욱, “북한 ‘1호 사진’의 변화.”

이외의 정치인이 1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김일성이 살아 있던 시절에 김정일의 단독 사진은 한 번도 1면에 등장하지 않았다.³³⁾

셋째,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엄숙하고 정중한 이미지로 촬영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촬영하기보다는 연출한 사진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조작 사진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화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의도적으로 정중앙 선에 위치하며 움직임이 없는 사진이 선택되어 게재된다.

넷째, ‘1호 사진’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롱 쇼트(long shot), 눈높이 앵글, 표준 렌즈 등을 주로 사용한다.

다섯째, 김정일 시대 ‘1호 사진’은 김일성 시대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고 김일성 시대에 비해 구도와 연출 정도, 취급 방법 등에서 자연스러움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

‘1호 사진’의 이런 특징은 1967년 이후 제도화되고 유형화되었으며 그 이후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1967년 이전에는 다수의 사진기자들이 김일성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촬영자의 정보가 사진에 병기되었다. 또한 자연스럽게 포착된 사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1호 사진’의 특징들은 1967년을 통과하면서 굳어졌는데 1967년은 북한 정치에서 하나의 변곡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사회주의는 1967년을 기점으로 일인권력체제의 전면화와 개인숭배구조의 정착, 그리고 사회의 기계적 집단화의 진행을 특징으로 하는 대격변이 일어난다. 정치적으로 수령제가 확립되었다면, 경제적으로는 제

33) 변영욱, 『김정일.jpg』(서울: 한울, 2008), 18쪽.

1차 7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마무리 되지 못한 채 3년 연장이 결정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1966년 중국에서의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 동안 소원했던 소련과는 관계를 정상화했다.³⁴⁾

또한 1960년대 말이라는 시기는, 김정일이 북한 정치와 사상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196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김일성 개인숭배와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 과정에서 김정일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는 문학 예술 부문과 출판보도 부문에 깊숙이 개입해왔다.³⁵⁾ 김정일은 1967년 이후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문학예술 부문에서 구체화시키는 정치·사상 투쟁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이를 구체화시키는 문예정책을 추진하였다. 김정일의 주도하에 1967년 6월 28일 설립된 ‘4·15창작단’은 문학 작품에 수령의 형상을 등장시킴으로써 유일사상의 내면화를 꾀했다.

문학과 영화가 수령체제 공고화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1호 사진’도 김정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체계화되고 정식화되는 개편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1호 사진’의 정립에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북한의 공식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당 중앙위원회 4기 15차 전원회의에 앞서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66년 10월 5일 당대표자회가 끝난 후 20여 일 후인 1966년 10월 28일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꾼 및 기자, 편집원들과 한 담화 “당대표회결정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

34)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1쪽.

35)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2), 499쪽.

자”에서 “특히 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들에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출판물에 실리는 사진보도물을 통하여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뵈게 되는 것만큼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의 정중성을 가지고 촬영도 잘하고 편집도 잘하여야 합니다”³⁶⁾라고 지적함으로써 수령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데 사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있다. 1967년의 정치적 상황을 통과하면서 유형화되고 제도화된 ‘1호 사진’은 그 후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2008년 이후 ‘1호 사진’에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1호 사진’에 변화가 감지된 것은 2008년 가을이었다. 그 해 8월 15일 노동신문 1면에 군부대를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실린 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최고 지도자의 얼굴이 사라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 기간 동안 노동신문 1면에는 어떤 정치인의 얼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노동신문은 한편으로는 최고지도자 김정일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꾸준히 게재한다. 8월 말까지 노동신문은 외신보도를 인용해 김정일의 동정을 보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사진은 게재하지 않는다.³⁷⁾ 그 이후로는 백두산에 있는 김정일의 친필(8월 24일)과 “선군 혁명령도 자욱이 어려워 있는” 철령 모습(8월 25일), 백두산 정일봉(9월 7일) 등 김정일을 상징할 수 있는 사진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거나 평양의 건물들(9월 1일), 김일성 종합대학(9월 2일), 대계도 간척지 방조제 공사 완성 모습(9

36) 김정일, “4·15문화창작단을 내올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71쪽.

37) 예를 들어, “라오스 통신, 이집트 통신 등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였다” 등의 기사 형식이다.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10번의 외신 보도가 노동신문에 인용되었다.

<표 1> 건강이상설 전후 '1호 사진'의 특징

	건강이상설 이전	건강이상설 이후
주인공의 위치	화면 가운데	화면 가운데
촬영자 정보	없음	없음
김정일의 구두	굽이 높음	굽이 낮음
망원경과 소총	사진에 등장	사진에서 사라짐
복수의 사진 게재	간혹 있었음	심해짐
사진 주제	다양함	경제현장으로 편중됨
후계자 사진 노출	속도가 느렸음	속도가 빠름
조작 사진	거의 없음	몇 가지 사례 발견됨

월 4일³⁸⁾ 등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김정일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게재된다.

북한 매체에서 모습을 감춘 지 56일 만인 10월 11일 김정일은 노동신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821 군부대 여성 포종대 시찰 모습이었다. 이때부터 노동신문에 실리는 김정일의 사진은 이전의 '1호 사진'과는 형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변화는 여섯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첫째, 건강이상설 이후 김정일의 사진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김정일이 권위적으로 보이기 위해 활용했던 소품 즉, 키높이 구두와 집체사진에 등장했던 쌍안경과 소총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키높이 구두를 신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건강이상설 이후 높은 굽 대신 고무 밑창을 단 운동화 또는 스니커즈 종류의 신발을 신고 있다. 굽이 높은 신발에 비해 훨씬 편한 기능의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군부대 시찰 집체사진에는 김 위원

38) 2008년 8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47일간 총 20일치 노동신문 지면.

장의 오른쪽과 바로 뒤에 선 병사가 각각 쌍안경과 은빛 소총을 들고 있었다. 쌍안경과 소총은 김 위원장이 중대급 부대에 주는 선물이었다고 공군부대나 비전투부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소품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이후 노동신문에 게재되는 군부대 집체사진에서는 두 소품이 사라졌다. 쌍안경과 소총이 등장하는 사진은 2008년 8월 11일이 마지막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환자에게겐 결코 가법치 않을 선물을 직접 전달하는 의식이 생략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으며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반복의 정도가 심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을 최대한 절제해서 국내외적으로 보도하였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강이상설 이후 김정일의 사진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게재 빈도가 기형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김정일은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노동신문에 등장하였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진은 최대한 절제한 상태로 게재되었다. 평균 6개 면인 노동신문에서 김 위원장 사진은 주로 1장이었으며 많아야 2, 3장 정도였다³⁹⁾.

김정일이 다시 얼굴을 드러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년간 김정일 사진이 신문에 등장한 날씨는 총 33일이다. 이 중 군부

39) 노동신문이 김 위원장 사진을 여러 장 실은 사례는 드물게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5년에는 1년간 총 300장 정도의 사진이 화보의 형태로 게재된 적이 있으며 김 위원장이 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방문 기록사진 여러 장을 실는 경우 등이었다. 또한, 2001년 2월 17일자에는 1, 2, 3면에 걸쳐 김 위원장의 평안북도 공업 부문 현지지도 사진 9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위원장의 생일 다음 날이었다.

대 시찰이 18일(54%), 경제현장 시찰이 12일(36%), 외국 손님들과 만나는 사진이 2일(6%), 초상화가 1일이다. 건강이상설 이전인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김정일 관련 사진은 현지도(42%), 군부대 시찰(30%), 외빈접견(8%)이었다.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건강 이상설 이전에 비해 등장하는 날짜의 빈도가 현저하게 줄었다. 1년을 365일로 본다면 건강이상설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은, 대략 11일에 하루꼴로 신문에 등장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월 평균 10회, 즉 3일에 하루 정도 신문에 등장했던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이상설 이후 1년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정일은 좀 더 활발하게 노동신문에 등장한다. 이 기간 동안 노동신문 지면에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날짜는 모두 91일이며 이는 1년 365일 기준으로 4일에 한 번꼴이다.⁴⁰⁾ 건강이상설 이전에 3일에 한 번꼴이던 빈도와 비교하면 등장하는 날짜의 수는 여전히 적지만 전체적인 사진 개수는 이전에 비해 월등히 많다.

김정일 사진의 총량이 늘어난 것은 역설적으로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즉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건강이 비정상인 상황에서 사진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건재를 증명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특정한 주제의 사진이 반복되고 있다. 김정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북한 사회 전체를 균형 있게 살피는 최고지도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경제현장에 편중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건강이상설 이후 1년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

40) 이 1년간 게재된 '1호 사진'의 숫자는 대략 400~500장 정도이다.

호 사진'의 주제는 군부대방문이 14일(15%), 경제현장 현지지도는 64일(70%), 외국 손님과 만나는 사진이 실린 날이 12일(13%),⁴¹⁾ 초상화가 1일치이다. 경제현장 지도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경제현장 현지지도가 42%를 차지했던 것⁴²⁾과 비교할 때 높아진 수치이다. 2011년 6월 현재까지 김정일은 주로 경제현장에 대한 현지지도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건강이상설 이후 '1호 사진'의 주제에는 큰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전후해서 평균 6개 면에 불과한 하루치 신문에 김 위원장의 얼굴이 20번 이상 등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1호 사진'의 양이 전체적으로 급증한 것도 경제현장 현지지도 사진이라는 주제의 비율이 증가한 것과 비슷한 이유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의 얼굴이 두세 번 등장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의 경우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사진이 게재된 경우는 없었다.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 직후 노동신문은 총 34회에 걸쳐 평균 8장 정도의 김일성 관련 사진으로 채워진 화보 지면을 제작했던 적이 있으며 1995년 7월 8일부터 10일간 서거 1주년 행사 사진과 과거의 사진으로 화보 지면을 제작한 경우는 있었다. 이 당시 사진의 내용은 항일운동시기부터 사망 직전까지 김일성의 활약을 보여주는 기록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건강이상설 이후 노동신문이 보여주고 있는 김정일의 사진들은 하루 동안 촬영된 장면들을 각도만 다르게 처리해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1994년과 1995년 상황과 구별된다. 2009년 11월의 경우, 하루치 신문에 김정일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 4번 이상 등장한 날은 1일(10번), 2일(4번), 7일(12번), 8일(9

41) 2010년 5월 중국 방문 후 총 7일간 신문에 관련 사진 화보가 실렸다.

42) 변영욱, 앞의 글, 41쪽.

번), 21일(12번), 24일(23번), 25일(19번), 27일(11번), 29일(13번), 30일(28번) 등 10일치이다. 특히 11월 30일자 신문에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찍은 사진이 모두 59장 실리는데 이 중 28장에 김 위원장의 얼굴이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을 옆에서 수행하는 인물들의 얼굴도 반복해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는 건강이상설 이전 사진에서는 보기 어려운 경우였다. 북한은 이렇게 방대한 양의 사진을 실기 위해서 기사가 전혀 없는 전면 화보 형식을 취했고 평소 6개 면이던 발행 지면을 11월 30일에는 10개 면으로 늘리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인 11월 26일자에는 김 위원장이 방북한 중국의 국방부장 량광페를 접견한 사진이 실렸는데 2장에 불과하다. 이것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경제현장에 대한 현지지도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 일정을 다른 사진과 달리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으며 그 의미가 독자들인 인민들에게도 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현장을 방문하는 김정일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노동신문이 주민들에게 뭔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현장을 방문한 김정일의 사진을 기형적으로 많이 게재하는 것은 북한이 경제 문제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과 2010년 신년사를 통해 ‘인민경제향상’을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얼굴을 ‘절제’해서 보여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연속촬영’해 보여주는 데에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인 형태로 알려보려는 홍보 정책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보여줄 만한, 정상 가동되고 있는 공장과 현장을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경제 상황이 정상화 또는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사진 2>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넷째, 외부 관찰자의 시선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최고지도자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다. 건강이상설 이후 56일 만인 2008년 10월 11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의 독자들과 인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진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진이었다(<사진 2>). 전체 지면의 1/2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큰 크기로 실린 두 장의 사진은 기존의 사진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사진은 노동신문 1면에 흑백 사진으로 실렸으므로 숲의 색깔로 사진의 촬영시점을 추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김 위원장의 사진은 촬영시점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2개월 정도 지난 사진을 신문에 게재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조작을 했거나 독자를 속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해상도 높은 칼라 사진을 본 서울을 비롯한 외국 언론들은 촬영 시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10월 한반도의 날씨에 비해 숲과

<사진 3>



풀의 색깔이 지나치게 초록빛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56일 만에 공개된 김 위원장의 사진은 북한이 외부 세계의 눈을 의식해 게재한 일종의 자료 사진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절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 이 사진이 김정일의 건강이상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로 활용되자, 같은 해 11월 2일 북한 언론은 김 위원장이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사진을 내보냈다. 이 사진의 특징은 배경에 가을 단풍이 잘 보인다는 점이고 수행원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사진 3>).⁴³⁾

북한에서 김일성 또는 김정일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는 등장인물의 얼굴도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김일성 또는 김정일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혁명대오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⁴⁴⁾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소한 한 달이 지난 사진을 마치 최근의

43) 사진을 촬영하면서 노출을 건물 밖 풍경에 맞추다보니 실내에 앉아 있는 인물들이 검게 나왔다. 만약 일반적인 북한 사진이었다면 실외 풍경은 무시하고 인물이 모두 또렷하게 나올 수 있는 촬영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일인 것처럼 노동신문 1면에 배치한다거나, 등장인물의 얼굴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사진을 게재한다는 것이 북한이 사진을 통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중병설을 제기한 외부 세계에 대해 ‘2008년 가을 김 위원장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을 것이다.

건강이상설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단체 사진 역시 외부 관찰자를 의식한 노출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버락 오바마의 당선이 유력해 보이던 2008년 11월 5일 오전 8시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대 두 곳의 장병들과 찍은 단체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건강이상설 이후 처음으로 나온 단체사진이며, 등장인물은 각각 190명과 124명이라는 점에서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측근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진은 곧바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전송되었는데 기존의 사진과 다른 점은 사진의 사이즈가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선중앙통신이 전송한 ‘1호 사진’은 파일 사이즈가 200~400KB크기로 저장된 JPEG 형식 파일이었으며 1000KB가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두 장의 단체사진들의 크기는 각각 2513KB와 1986KB이었는데 이는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 등으로 사진을 저장하면서 압축 정도를 낮춰, 사진을 확대해도 해상도가 변하지 않게 했다는 뜻이다. ‘조작인지 아닌지 크게 확대해서 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사진을 통해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김정일 이외의 권력자들의 모습이 노동신문 1면에 노출되

44) 변영욱, 『김정일.jpg』, 59쪽.

고 있고 김정은은 김정일의 등장 때와는 달리 아주 빠른 속도로 대내외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1967년 이후 김정일 이외의 정치인의 모습은 노동신문 1면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009년 5월 7일, 5월 13일, 5월 16일 노동신문 1면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2009년 6월 7일에는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 부장이 김정일과 함께 노동신문 1면에 등장하기도 한다. 북한 노동신문 1면에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을 계기로 북한 지역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1940년대 말까지 노동신문에 김일성의 단독 초상화 또는 초상사진이 실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66년까지 북한 노동신문 1면에는 김일성 이외의 권력자들의 모습이 실렸으며 김일성의 사진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파워블록(power block) 내에서 제한적이거나 다원성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을 통과하면서 노동신문의 1면에서는 김일성 이외 정치인들의 모습은 사라진다. 이 시기는 김일성의 권력이 북한에서 유일한 권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김정일 역시 김일성의 사망 때까지 북한 노동신문의 중요한 자리에 얼굴을 드러내지 못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에 열린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인되었다. 1975년 11월 3일 북한을 방문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기자들은 탐방 기사를 통해 “원산거리의 공공 전시관에 부착되어 있는 대형 그림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김일성 부자의 모습이 똑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평양 시청에 이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종합해 볼 때 “김일성이 그의 후계자로서 그의 아들을 선택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로 믿어진다⁴⁵⁾”고 밝혔다.⁴⁶⁾ 김정일은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군부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갔고 “1975년에는 군 병영에 김정일의 초상화가 김일성과 나란히 부착되었다.”⁴⁷⁾ 하지만 김정일은 후계자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갖지 못한 1980년까지 신문을 통해 얼굴을 알리지 못했다. 이처럼 북한에서 신문에 실리는 정치인의 사진은 그가 지닌 권력의 크기를 반영한다.

그런데 후계자로 지명된 후 김정일의 얼굴은 빠르게 노출되었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 3차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를 열었고 곧바로 기념사진을 통해金正은의 모습을 공개했다. 김정은의 얼굴이 노동신문 1면을 통해 공개되었다는 것은 후계자 김정은의 위치가 공식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이 후계 체제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식 데뷔한 김정은의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었거나 최소한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이후 급속하게 부상했다는 것은 분

45) 이정식, 『조선노동당 약사』, 김성환 옮김(서울: 이론과 실천, 1986), 159쪽.

46) 하지만 당시의 북한 연구가들과 정보관계자들은 그것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김정일이 확정되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조선노동당 약사』는 국내 출판년도는 1986년이지만 이정식의 원고는 1977년 2월에 작성된 것이므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김정일을 후계자로 발표한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이전의 북한연구인 것이다. 이정식은 이 책에서 “이러한 보도들은 북한의 지도자에게 김정일이라는 아들이 있으며 그는 북한의 정치체제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양성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가 당의 선전과 조직 활동 양 분야의 책임자 자리에 올랐다거나 그가 현재 모든 국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거나 하는 보도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이정식, 『조선노동당 약사』, 160쪽)고 기술하고 있다.

47) 이태섭,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단결’의 정치,”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2003), 39쪽.

명해 보인다.

<사진 4>

또한 같은 해 10월 10일 북한이 이례적으로 생중계한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일에서 김정은은 김정일과 함께 열병식 주석단에 올라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알렸다. 북한은 노동당 창당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해외 언론사 취재단 약 80명을 초청했다. CNN과



영국 BBC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병식을 생중계했고, 이 밖에도 AP통신, NPR, 아랍권 위성방송 알 자지라, 스페인 공영방송인 TVE 등도 실시간으로 기사와 사진 또는 동영상을 프레스센터에 깔린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 외부로 전송했다. 또한 외신기자들에게 김정은의 얼굴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중국 신화사 통신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김정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외부로 노출되었다. 북한이 외국 기자의 접근 허용을 통해서, 김정은의 얼굴을 상세하게 노출시킨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사진 4>).

김정은의 존재는 더 이상 베일 뒤에 숨길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월 23일자 노동신문에는 만수대창

<사진 5>



작사를 현지 지도한 김정일과 김정은의 소식이 화보 형식으로 실렸는데 김정은이 포함된 사진이 8장이나 된다.

여섯째, 사진 속에 있는 구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면서 ‘1호 사진’을 조작하기도 한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1호 사진’을 조작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북한은 ‘1호 사진’을 조작하거나 합성하지 않는 관행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건강이상설 이후 몇 차례 조작사진이 신문에 게재되고 있다. 2009년 7월 6일자 노동신문 1면에 실린 사진은 예전의 사진과는 다른 형식을 보이고 있다. 대계도 간석지 건설현장 노동자들과의 기념사진에는 두 개의 구호관이 보인다. 그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우리 장군님과 끝까지 뜻을 같이하자”는 구호관이 새롭게 등장했다(<사진 5>).

이 구호관은 실제 사진을 촬영할 당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후에

합성된 것이다. 이 사진에서는 초점의 범위가 정상적인 사진과 다르다. 사진의 초점은 맨 앞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맞춰져 있다. 카메라의 특성상 카메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초점이 맞을 경우 뒤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선명도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 사진의 경우 뒤쪽에 있는 구호판이 앞쪽 구호판보다 선명하다. 2009년 11월 12일자 2면에 실린 ‘3월 5일 청년 광산 마을’ 공사현장 사진에는 포토샵으로 추정되는 편집프로그램으로 합성해 넣은 구호판이 보인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만세”와 “장군님 따라 천만리” 등 2개의 구호판은 카메라에서부터 다른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포커스 상태가 똑같다는 점에서 합성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11월 15일자 노동신문 1면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와 11월 17일자 3면의 “폭풍쳐 달리자 ‘희천속도로’” 등도 사진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벗어나 있다. 즉,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물과 선명도가 다르다.

사진에 포함된 구호판은 북한 정치에서 김정일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주려고도 한다. 김정일의 등장 이후 사진 속 구호판에 후계자를 상징하는 단어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김정일이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경우 연단 뒤편의 구호판은 2가지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또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판이었다. 하지만, 건강이상설 이후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로 통일되었다. 김정일의 등장 이후 구호판은 또 한 번의 변화를 겪는데 새롭게 등장한 구호판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이다. 당 중앙은 김정일이 북한 정치에 등장할 당시 통용되던 표현이다. 김정일의 등장 이후 북한 집체사진 구호

관에서 목숨으로 사수해야 할 대상이 “혁명의 수뇌부”에서 “당 중앙 위원회”로 바뀌었다는 것은 김정은의 지위가 김일성 시대 후계자로 내정되었던 김정일의 지위와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4. 결론

‘1호 사진’은 철저한 검열 과정을 거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배포되는 만큼 ‘1호 사진’은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1호 사진’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체제는 1967년 확립되었고 지난 40년간 권력이 원하는 이미지만이 생산되어 유통되어왔다.

2008년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이후 북한 ‘1호 사진’에는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철저하게 통제된 가운데 소수의 사진기자에게만 촬영이 허용되며, 현장감을 높이는 기법을 활용하고 주인공을 최대한 정중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촬영된 사진이 촬영자와 촬영 날짜에 대한 정보 없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 ‘1호 사진’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건강이상설 이후 김정일의 사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권력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진의 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사진의 양은 김 위원장의 건강과 권력이 정상 상태임을 강변한다. ‘1호 사진’은 최고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대내외적 의심에서 비롯된 위기에 대응하면서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이상설 이후 김정일이 경제현장을 시찰할 경우, 한두 장

의 사진으로 현장의 대표적인 장면만을 보여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장의 여기저기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 강국 건설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9월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등 경제 발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제현장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지도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체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생전에 최소한 강성대국 건설의 토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경제강국 건설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일성의 최대 유훈이라는 강성대국 건설에 오른다는 것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⁴⁸⁾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경제난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보는 북한으로서는 최우선의 과제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나이와 건강은 협상의 당사자로서의 위상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으며 경제 발전을 더 이상 독려하기 힘든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수령의 후계자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그리고 김정일로서는 매우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⁴⁹⁾이다.

또한, 김정일의 등장 때와는 달리 김정은의 모습은 빠른 속도로 외부에 보이고 있다. 북한은 외신기자를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김정은의 이미지를 널리 선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일의 건재를 과시하는 한편 김정은에 대한 노출을 서두르는 것에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 북한에서 수령과 후계자는 권력자이기 전에 통일·

48) 박후건, “북한의 후계체제와 김정일 정권 이후 북한의 정치체제 전망,” 『현대북한연구』, 제13권 3호(2010), 109쪽.

49) 위의 글, 110쪽.

단결의 중심이며, 사상·조직의 영도자(지도자)이다. 이들에게 권력의 지위는 사상, 조직의 지도를 위한 권력이다. 북한 정치가 통일 단결 그리고 사상 조직의 지도자로서 수령을 필요로 했던 것은 역사적 상황 때문이었다.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은 비로소 북한이 의도했던 수령체제의 제도적 완성이었다.⁵⁰⁾ 하지만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북한은 새로운 후계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새로운 통일 단결의 구심으로 김정일의 이미지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진 속 구호판을 통해 북한은 자신들이 대내외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략적 변화인지, 아니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술인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건강이상설 이후 북한 ‘1호 사진’의 변화는 북한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 접수: 6월 30일 / 수정: 7월 28일 / 채택: 8월 5일

50) 이태섭,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단결’의 정치,” 15쪽.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등대사, 『당의 향도자』(평양: 등대사, 1995).
리양일, 『주체영화리론총서(7)』(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엄기영, 『신문학개론』(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조선로동당출판사,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2) 논문 및 저작집류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김정일 선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86년 1월 3일), 『김정일 선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조선통신사의 기본임무—조선중앙통신사 일군들과 한 담화”(1964년 6월 12일), 『김정일 선집』,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4·15 문학창작단을 내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67년 6월 20일), 『김정일 선집』,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당에 끝없이 충직한 문예전사로 준비하자—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 문학부 졸업생들과 한 담화”(1968년 10월 8일),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예술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평양연극영화대학 교직원들 앞에서 한 연설”(1971년 7월 8일), 『김정일 선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_____, “영화예술론”(1973년 4월 11일), 『김정일 선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지덕중, “직관선동미술의 예술성을 높이자,” 『조선예술』, 제1호(평양:문학예술
종합출판사, 1994).

3) 기타 자료

『로동신문』

『문학신문』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

_____, 『조선중앙년감』 195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0).

『백과전서 3』(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조선대백과사전』(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조선말대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강현두, 『북한 매스미디어론』(서울: 나남출판, 1997).

김연철 외, 『북한, 어디로 가는가』(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김영주, 『현대북한언론연구』(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김영주·이범수 엮음, 『현대북한언론의 이해』(서울: 한울, 1999).

김정기·박동숙, 『매스미디어와 수용자』(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김정숙,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서울: 정토출판, 2006).

니콜라스 미르조예프, 『비주얼 컬처의 모든 것』, 임산 옮김(서울: 홍시, 2009).

박상수, 『포토저널리즘의 이해』(서울: 나남출판, 2001).

베르너 크리머 릴(원전은 1996), 『영상커뮤니케이션』, 조창연 옮김(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변영욱, 『김정일.jpg』(서울: 한울, 2008).

안토니 R. 프렛카니스·엘리엇 아론스, 『프로파간다 시대의 설득전략』, 윤선걸·
정기현·최환진·문철수 옮김(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알렉스 인켈스, 『소련의 여론』, 이규중 옮김(서울: 대학문화사, 1985).

올리비에 르블, 『언어와 이데올로기』(역사비평사, 1995).

월버 슈람, 『언론의 4이론』, 강대인 옮김(서울: 나남출판, 1999).

유재천, 『북한의 언론』(서울: 을유문화사, 1989).

이구열, 『북한미술50년』(서울: 돌베개, 2001).

이영준, 『이미지 비평』(서울: 눈빛, 2008).

_____, 『사진, 이상한 예술』(서울: 눈빛, 1999).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_____, 『북한사회의 상징체계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2).

이정식, 『조선노동당 약사』, 김성환 옮김(서울: 이론과 실천, 1986).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2).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서울: 책세상, 2001).

전영선, 『북한의 문학과 예술』(서울: 역락, 2004).

주창윤, 『영상이미지의 구조』(서울: 나남, 2003).

주형일, 『영상매체와 사회』(서울: 한울, 2004).

조영복, 『월북예술가 오래 잊혀진 그들』(서울: 돌베개, 2002).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탈분단시대를 열며』(서울: 삼인, 2000).

존 버거, 『이미지-시각과 미디어』, 편집부 옮김(서울: 동문선, 1991).

지젤 프로인트, 『사진과 사회』, 성완경 옮김(서울: 기린원, 1990).

2) 논문

고명진, “한국 언론의 김일성 사망보도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구갑우, “북한연구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 2003).

김동철, “프로파간다 사진읽기 역사의 흐름에 지워지는 사람들,” 『계간 사진기자』, 봄호(한국사진기자협회, 1999).

김성민, “이라크 전쟁보도사진의 사회적 현실구성에 관한 연구-미국, 프랑스, 한국의 시사 주간지의 전쟁 보도사진을 중심으로”(경희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김용현, “선군정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정치변화,” 『현대북한연구』, 제8권 3호(북한대학원대학교, 2005).

류길재,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의 권력구조 전망,” 『북한, 어디로 가는가?』(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박후건, “북한의 후계체제와 김정일 정권 이후 북한의 정치체제 전망,” 『현대

- 북한연구』, 제13권 3호(북한대학원대학교, 2010).
- 변영욱, “북한 ‘1호 사진’의 변화”(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우영, “북한의 문화전략,” 『북한의 국가전략』(서울: 한울, 2003).
- 이태섭,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단결’의 정치,”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3).
- 전미영, “북한의 대중 설득 정책과 김일성 담화의 언어 전략,” 『현대북한연구』, 제3권 1호(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0).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조선미, “韓國肖像畫에 대한 畫論의 接近,” 『미학』, 제7호(한국사진학회, 1981).
-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조흥래, “김정일 체제구축과 지도자 이미지 형상—정치적 지위변화와 이미지 형상의 연계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홍미연, “『로동신문』의 위기 극복 담론 분석”(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 기타 자료

『동아일보』

『연합뉴스』

3. 국외 자료

- Lester C. Olson, Cara A. Finnegan, Diane S. Hope, *Visual Rhetoric - A Reader in Communication and American Culture*(SAGE Publications Ltd, 2008).
- Bruce Bimber, *Informa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in America: The Search for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at the Individual Level*(SAGE Publications, Ltd., 2001).
- John Morris, “This we remember, Have photographers brought home the realty?,” *Harper’s Magazine*, No. 9(1972년 9호).

A content Analysis of North Korean Photographs on Its Political Leaders.

Byeon, Yeong Wook(Dong-A Ilbo)

From the start of its construction, North Korea has used mass media periodicals to deliver its messages to mass audience. This socialist state has extensively published propaganda photographs in a variety of mass media. Kim Il Sung or Kim Jong Il's pictures are called as 'Portrait One' by North Korean people.

To explore how the ruling camp has used photographs for the political purpose, photographs of Kims were sampled from the state-run Rodong Shinmun.

Content analysis was employed as the method of study. In order to enrich the analysis, this study investigated North Korean textbooks of journalism and dissertations of Kim Jong Il.

This article presupposes that the representation strategy and message of 'Portrait One' would vary depending on political situation and intention.

‘Portrait One’ has maintained its unique style since the year of 1967. Little change had been observed since then for 40 years. But after the report of Kim Jong Il’s sickness of 2008 autumn, some changes have witnessed. Recently North Korea is releasing much amount of photographs of Kim Jong Il and most of photographs are related with economy. In advance, Kim Jong Eon, the son of Kim Jong Il is formally exposed to the worldwide audience. Such changes reflect conditions of Kim Jong Il and the political changes. North Korea strives to emphasize that Kim Jong Il is still alive and he has accomplished enormous economic performance. Additionally, North Korea is persuading its people that it is time to prepare to meet a new leader for the future.

Keywords: North Korea photography, newspaper, ‘Portrait One’,
Suryong system, regime maintenance, Kim Jong Il, Kim
Jong Eun, Kim Il Sung